

어릴 적 학교 앞에서 어린애를 안고 앉아 등냥하는 젊은 아주머니가 있었다. 두어 살 쯤 되어 보이는 아기는 늘 엄마 짓을 만지작거리며 안겨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머리 위까지 강보에 싸인 채 안겨 있었다. 며칠이 지난 후 아주머니는 사라졌다. 그 후 흥흥한 소문이 교실에 퍼졌다. 등냥 수입이 줄어들까봐 이미 죽은 아기를 열혈이 넘도록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거지 아주머니는 '시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악용한 것일까? 간단치 않은 도덕적·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다.

다 돈 때문이다. 돈은 모든 것을 지배한다. 돈은 눈도 귀도 없지만, 그래서 무색무취하며 추상적이고 익명적이지만, 교환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교활하다. 그래서 마르크스(Marx)는 제익스 피어를 인용하고, 제익스피어는 아테네 신사들의 입을 빌어 '돈이 교환에 뛰어드는 곳이면 어디든,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중개하고, 자립적인 것을 비자립적인 것으로 만들고, 정반대의 것도 함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돈을 중용하는 단순한 사회주의적 평등론자들은 가끔 '돈을 없애 버리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며, 우리는 다만 돈이 모든 사회적 선(good)들을 넘어 중형 무진하지 못하도록 '정교하고(왜냐하면 돈은 아



불자 세상보기

구 승희
동국대 윤리학 교수

여배우의 '절망적 교환'

주 교환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순리임을 알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사서는 안되는 것의 목록이 그것이다. 우리는 사람, 정치권력과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사법적 정의, 판지, 타인의 건강과 행복, 포상과 명예 등은 사고파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는 금지가 아니라, 교환에 나서지 않아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중지상태이다.

그런데 돈이 교환에 나서지 않아서 거래 중지된 영역을 말고, 가까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어

하지만, 거래를 방해하는 공동체의 관행들 때문에 '유보'되는 영역들도 있다. 인간 신체의 일부, 사체(死體), 역사적 기념·상징물, 정신적 가치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은 거래가 성사되지만 한다면 때로·매수자 모두에게 아주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은밀하게, 부정직하게 호시탐탐 거래기회를 노리는 영역이지만, 동시에 '절망'을 섞어 팔고, 절망의 부담을 안고 구매하기 때문에, 나는 이를 '절망적인 교환'이라고 부르고 싶다.

요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여배우의 '위

인부를 데마로 한 영상물'이 바로 이런 절망적인 교환에 해당한다. 영상물을 찍어 팔아서 번 돈으로 '일본군 위안부 명예와 인권의 전당'을 짓는데 전액 기부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가 아니겠느냐고 말하는데, 이는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술을 팔아, 번 돈으로 학교를 지어 청소년에게 훌륭한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 원인의 오류'다.

이 사업을 기획한 회사와 출연한 연예인은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 아니라 강변하지만, 눈도 귀도 없는 돈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자본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돈은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는 '가격'만 알지, 정신대 할머니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지불한 판매 정가(定價)란 잘생긴 여자의 아토타트 포즈와 보일 듯 말 듯한 젖꼭지로 표현된 동영상 파일을 소유하는 대가일 뿐, 치욕과 질곡의 한국현대사, 그 핏빛 절규와 한을 탁월한 영상미학을 통해 광정(匡正)하는 계몽의 대가는 아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교환'은 금지되는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한국 불교는 주로 지혜의 측면에 치우쳐 있어 자비의 실천이 실종되어 있다는 비판이 오래 계속되어 왔다. 불교의 사회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등은 이런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불교의 치우친 양상을 바로잡아가려는 하나의 큰 흐름 위에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이 커지고, 여러 가닥으로 구체화되는 그런 반가운 현상들이 이곳 저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 가장 큰 여가 요즈음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나눔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승려의 노후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자비의 보람금 나눔운동'을 비롯하여 외국인 노동자, 소년소녀가장 돕기 나눔운동을 올해의 중요한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현대불교에서도 '나눔' 모두가 행복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연중 캠페인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단순한 이념 차원의 운동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자비 실천의 방법을 제시하며 이루어

나눔은 '불교'의 실천

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자비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나눔'이라는 친숙한 언어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시간, 돈, 힘, 지식 등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자비실천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러한 운동에 손쉽게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러하기에 우리 불교계의 자비실천 운동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추상적인 개념을 알기 쉽고 구체적인 언어로 제시하고, 또 손쉬운 동참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이 운동의 가장 특징이며 힘이다.

자비의 실천은 환희심을 낳고 그 환희심은 다시 자비심을 증폭시킨다. 나눔으로써 더욱 필요로워지고 박박해지는 것이 자비다. 그러하기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힘을 증폭시켜 나갈 수 있다. 나의 조그만 나눔이 나의 자비를 증장시킬뿐만 아니라, 불교계와 이 사회를 자비의 힘으로 파스하게 감쌀 수 있는 운동인 이 '나눔운동'에 모든 불자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 성대용(한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악지식'을 '선지식'으로

"...(보살은) 모든 국토 가운데 저쪽과 같은 곳이 있으면 애오라지 그곳에 가서 그 고뇌를 없애서 교화하고, 축생처럼 서로 잡아먹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이익되게 한다..."

〈유미경 불도품(佛道品)〉

한국 사회에서 '성격좋은 사람' 소리를 들으려면 오관을 담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관용도'를 최대한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전직 대통령 아들의 과자점에 대해서는, '다행이야, 명색이 전직 대통령인데 29 만원이 뭐야. 몇백억은 쌓아두고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자. 이승연 누드 사건은 '용케도 육신의 무상(無常)함을 제대로 알아. 그래도 보여줄 만한 몸일 때 한뿐이라도 더 벌어야지' 하고 봐 주자. 내진김에 '자폐기'로 불리는 정치인과 기업의 검은거래에 대해서도 국제정의 수고를 덜기 위한 '소득재분배'도 여기저기. 그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다.

세상의 번뇌가 너무 깊다.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탐진치에 빠진 세상을 관하고는 설법을 주지하며 '잡자고 편안히 있고자 한' 탄식이 들리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탄식이 있었기에 부처님의 설법은 공허한 청담(淸談)이 아닌 현실의 언어가 된다. '삼계화택(三界火宅)'은 비유의 언어가 아니다. 그래서 '만약 보살이 비도(非道)를 행한다면 바로 불도에 들 것'이라고 한 유마라의 역설은 대승정신의 핵심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보살은 어떻게 비도(非道)를 행하는가. "5무간죄업을 행하지만 번뇌와 성냄 없이 지옥에 가고, 모든 죄업의 때 없이 축생이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악지식(惡知識)을 선지식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악평등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세간법을 넘은 불법의 진실이다.

■ 윤재학(이동문학가 / 본지 논설위원)

특별기고

끝내 불교인구가 줄었습니다

'현대불교' 461호 1면에 실린 불교인구·활동이 많이 줄었다는 통계청 발표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다종교에 비해 20~30대 신도가 격감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등한시한 결과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흔히 군장병 포교를 황금어장에 비유한다. 군포교의 중요성을 일깨운 말일테다. 여기에서 간과해선 안될 일은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이다. 어린이·청소년 포교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군포교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노력할 이유가 없다.

오늘날 한국불교는 세계 최대 또는 동양 최대의 불사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곤 한다. 하지만 이같은 불사에 한국 불교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영 내키지 않는다. '인재불사야말로 진정한 불사'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건축불사에만 몰두하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 건축불사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건축불사에 비금가는 인재불사, 그 중에서도 어린이·청소년 불자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현재 각 종단 주요 사찰 가운데 어린이 불교학교 또는 청소년법회를 운영하는 곳은 얼마 되지 않는다. 불교유치원은 더러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위한 불교시설과 법회는 거의 없다. 불교유치원

은 사찰 재정에 보탬이 되지만 어린이·청소년 법회는 사찰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잘 운영되면 어린이·청소년 법회도 주지 스님이 바뀌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일선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올분을 식일 수밖에 없다. 어린이·청소년 포교가 사찰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돈 안된다' 어린이 법회 외면 업보 인식 전환·제도 마련 총동원 해야

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불교를 푸대접하고도 불교의 중흥과 훌륭한 스님과 재가불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각 종단과 사찰은 어린이와 청소년법회를 개설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지금의 시점에서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각 종단과 사찰,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이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 나가는 일도 필요하다. 이를 체계적으로 종단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종단은 종합적인 어린이·청소년 포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예를 든다면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폐지하거나 개설하지 않는 스님에 대해서는 공직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과 스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스님들은 '어린이·청소년 법회는 수입이 없고 지출만 있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어린이·청소년 법회의 중요성을 사찰의 재정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스님이 있다면 불교를 이끌어가는 성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불교를 알리는 일인데 어떻게 재정의 손익과 결부시킬 수 있겠는가.

불자들도 역할이 필요하다.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내 자녀를 보내고 후원하는 일이다. 어린이·청소년 법회가 없어지는 이유가 인연 부족인 경우도 있으니 사찰만의 책임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절대절망의 과제다. 한국불교의 희망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이번 통계청 자료에서 드러난 현실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소홀했던 한국 불교가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매진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김광호(부산 금화사 초승불교학교장)



범패 교육
중요무형문화재 해공스님

서기 2004년 2월 28일 오후 2시부터 ~3월 3일 정오까지(4박5일)

광주 호남불교의식대학에서는 뜻깊은 범패교육실시함

내용 및 날짜

- 2월 28일 관음시식, 대령관곡, 소낭독하는 법, 민바라춤
- 2월 29일 39위 신중작법과 소창물작법, 방생의식하는 법, 천수바라
- 3월 1일 가사 이은식, 천수바라, 화청(희심곡)강의
- 3월 2일 불보살 점안식 교육, 천수바라
- 3월 3일 상가집 염불하는 법, 도량계, 다계(나비춤)작법

숙식제공 및 교육비 : 하루 오만원씩

<미리전화 및 입금바람>
062)362-8604 / H.P 011-624-8604 (농협계좌 641010-56-000296 노연숙)

2004년 제6기 신입생 및 범패 교육생 모집

범패 광주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상지리배과정 - 안채비 : 각종의식, 49제의식, 천도제, 신중작법의식, 각종소, 낭독하는법 - 걸채비 : 바라춤, 도량계작법, 다계작법(나비춤), 사물타는법, 화청(희심곡)
- 과 정 : 2년(4학기), 1년 과정(2학기)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학교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 3장, 주민등록등본 2통
- 입 학 식 : 2004년 3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 강의시간 : 매주 월요일 - 1학년(오후 3시 ~ 5시 30분) 매주 수요일 - 2학년(오후 3시 ~ 6시) 상지리배반 목요일(오후 3시 ~ 5시 30분)
- 1년 기본과정 : 매일 첫 주,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 ~ 8시 30분까지
- 통신생 출석교육 : 매일 둘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일요일 12시까지
- 전화번호 : 062)362-8604 / 011-624-8604 011-614-8604
- 계좌번호 : 농협 641010-56-000296 (예금주: 노연숙)

* 각 사찰 49재, 천도제, 예수제, 점안식, 각종 행사문의바람.

金仙 양생기공

"불자님들과 신도님들의 건강을 성명쌍수의 비법으로 지켜온 금선학회에서 제2기 백일 축기반과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육체에는 육체의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무시한 채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며 관념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깨달음은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에서 얻을 수 있다..." (불교성전 발해)

백일기도, 천일기도... 불철주야 애쓰시는 불자님들과 신도님들의 건강을 성명쌍수의 비법으로 지켜온 금선학회에서 제2기 백일 축기반과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1. 제2기 백일 축기반 모집안내

모집시기	2004년 2월 한달간
수련일정	2004년 3월 1일 ~ 6월 8일까지 월-금 20:00-22:00
수련장소	세계금선학회 본원 (사당역 11번 출구 150m, 은혜빌딩 6층)
수련내용	1. 금선공법 : 금선오행 기공, 금선 기치로법, 금선관법, 명상, 묘유주천, 소주천, 대주천 2. 금선 양생법 : 영보필법, 수도전지, 대성협경 3. 수진도 내경도
회 비	월 1,000,000원

2. 신입회원 수시접수
3. 수련요약
중풍, 신경통, 디스크, 관절염, 요통, 오십견, 미관, 변비, 건망증, 불면증, 노이로제, 두통, 이명, 각종 무인병, 간장질환, 심장질환, 위장병, 폐질환, 신장질환 등 치유와 예방

금선학회가 궁금하세요? 인터넷 주소창에 "금선학회.net"만 치세요.

세 계 금 선 학 회
교육문의 : 02)512-7057, 7233